

피플스토리

# 원칙을 고수하는 강단있는 핵 외교관,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글 / 김우현 칼럼니스트

세상에는 다양한 곳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그 중 핵의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하고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200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다.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2005년 IAEA와 함께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노벨상위원회는 "원자력 에너지가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평화적으로 사용되도록 공헌한 공로를 기려 수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엘바라데이의 삶을 살펴보며 핵비확산에 힘썼던 그의 노력을 들여다보자.

## 학자, 외교관, 국제공무원으로 경력을 쌓다

엘바라데이는 1942년 6월 17일, 이집트 카이로 기자 주에서 이집트변호사협회장을 20여 년간 맡았던 무스타파 엘바라데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이집트 카이로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스위스 제네바 국제개발학대학원(IHEID)을 거쳐 1974년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국제법으로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했다.

IAEA 사무총장이 되기까지 엘바라데이는 학자, 외교관, 국제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두루 쌓았다. 그는 박사학위 취득 전인 1964년부터 이집트 외무부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이집트 외무장관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이후 1980년 유엔(UN)에 합류해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국제법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

다. 이듬해인 1981년부터 1987년까지는 모교인 뉴욕대에서 국제법 겸임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노벨상위원회는 그의 경력에 대해 "외교관, 국제공무원, 학자로서 경력을 쌓는 동안 엘바라데이는 국제 평화, 안보 등의 분야에서 국제기구의 업무에 매우 익숙해졌다"며 "국제법, 국제기구, 군비 통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폭넓게 강의했으며 다양한 글과 책을 저술했다"라고 설명했다.

## 핵무기 검증 원칙 고수하며 12년간 IAEA를 이끌다



엘바라데이 IAEA 전 사무총장이 2002년 이라크 핵 사찰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Dean Calma / IAEA

1984년 법률 고문으로 IAEA에 합류한 엘바라데이는 1994년부터 IAEA의 대외협력부 사무총장을 지내다 1997년 12월부터 한스 블릭스 전 총장의 뒤를 이어나 네 번째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4년간의 임기를 마친 그는 2001년 9월 재선됐고, 2005년 9월 3선에 성공했다.

IAEA 사무총장으로 일할 당시 엘바라데이는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의 핵무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해결과 사찰 및 검증, 대화를 고수하는 강단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았다. 그는 강대국인 미국과의 마찰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예컨대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제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앞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사찰을 지휘한 엘바라데이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종용해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미국이 핵 문제를 이유로 이라크에 이어 이란까지 공격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사찰 결과) 어떠한 명확한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고 우리는 신념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일하고 있다"며 미국이 거짓 정보를 이라크 침략 명분으로 삼은 것을 꼬집기도 했다. 이후에도 엘바라데이가 외교적 해결을 고수하며 이란 정부에게 답변할 기회를 보장하자 이를 비난하는 미국에 대해 "무책임한 참견", "외교적 노력을 등진 채 전쟁의 북소리를 울려 댄다"고 반박했다. 그가 당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변명을 해야 했다.

엘바라데이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사찰 및 검증을 통한 외교적 해결 원칙을 고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핵무기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엘바라데이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AEA 사무총장 3선에 성공하며 국제 사회로부터 역량을 인정받았다. 노벨상위원회는 "폭넓은 국제협력을 통해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핵무기의 위협에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런 원칙이 IAEA와 엘바라데이 총장의 활동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

현됐다"고 그의 공로를 인정했다.

엘바라데이는 핵 검증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 개발에도 힘썼다. 2004년 엘바라데이는 방사선 의학 및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암 치료를 돕는 '암 치료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PACT)'을 시작했다. 그는 "암 환자의 최소 50~60%가 방사선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방사선 치료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전문가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PACT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해 지금도 개발도상국의 암 치료를 돕고 있다.

사무총장 임기가 끝난 뒤, 엘바라데이는 이집트로 돌아가 이집트 국내 정치를 이끌기도 했다. 2011년 이집트 시위에 참여, 2013년에는 과도정부의 신임 총리를 맡았다.



200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함마드 엘바라데이의 모습. ©Dean Calma / IAEA

엘바라데이는 노벨평화상 수상 당시 "이번 수상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라, 즉 공명정대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라'는 메시지로 알겠다"고 말했다. 그는 IAEA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끝까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북한이나 이란 정상들과의 혹독한 외교적 협상을 주도하는 등 그 책임을 다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IAEA를 이끈 그의 원칙론은 지금의 어지러운 국제 정세를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